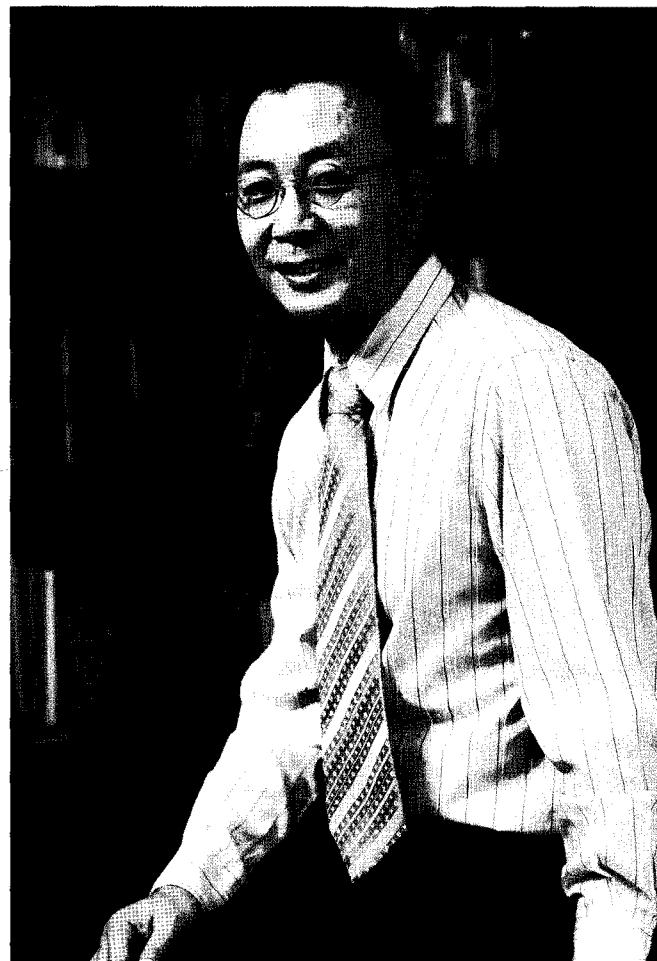


(주)한성회원권 이문오 대표

사람과 더불어 웃는다

작년 초 오픈한 국내 최초 골프 멤버십 'HS Club'을 통해 '사람 냄새' 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한성회원권의 이문오 대표.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숫자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염증이 나 시작한 레저 전문 사업은 그를 사람과 더불어 즐기고 누리게 만들어주었다.

에디터 이승민 글 고나영(프리랜서) 사진 제공 이충규



투자상담사, 금융 자산관리사, 재무 위험관리사, 자산운용 전문 인력… 금융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던 다양한 직함들이 더 이상 그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가 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만 지켜보면 본인의 일상에 염증이 났고, 수익만을 좇아 헤맬 만큼 돈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금융전문 회사(주)리치에셋에서 지금의 레저 전문 기업 (주)한성회원권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닐는지… 선물옵션 시장에서 직접 개발한 최첨단 운용시스템을 활용해 크게 성공을 거둔 이문오 대표. 2000년 (주)리치에셋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 및 컨설팅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한 후, 이른바 부티크 형식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해 투자가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바 있는 그는 2006년 레저 전문 기업 (주)한성회원권을 설립해 골프 및 여행, 레저 등으로 눈을 돌렸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 준비를 위해 귀국했을 때, 우연찮게 '선물 거래'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저 용돈벌이나 하자는 심산으로 지인들과 함께 금융 파생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 전문 회사를 시작했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욕심도,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 의식도 애초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보니 200%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됐고, 입소문이 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며 숫자에 연연해하는 제 모습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지 5년 만에 모두 접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1년 이 저에게는 참 값진 휴식이자 터닝 포인트였죠." 성공가도를 달리던 리치에셋을 뒤로하고 떠난 캐나다 여행에서 골프와 연을 맺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 (주)한성회원권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성회원권은 골프, 콘도, 헬스 회원권의 거래 중개 및 회원권 분양 대행, 리조트 개발 관련 사업 컨설팅, 대회 유치 및 기획, 세무 업무 대행 등의 토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저 전문 기업으로 '사람'이 중심에 있고 그 '사람'이 유익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사람

냄새가 그리웠던 이문오 대표이기에 감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리라.

"현재 주력 사업은 'HS Club'이라고 하는 골프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골프 업계 최초의 커뮤니티 멤버십으로 골프 대회, 골프 투어, 유소년 캠프,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골프 및 여행, 레저를 보다 저렴하고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일본 골프 여행을 시작으로 골프 치기 좋은 세계 각지를 연계해나갈 예정이고요." 캐나다에서 골프를 처음 접했을 때, 그가 흥미로웠던 것은 퍼팅 실력이나 타수가 아닌 자연 친화적이고 여유로운 골프 문화였다고 한다. 골프를 치면서 따먹었던 나무 열매들, 지인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머리를 쑤히기 위해 혹은 하루 종일 방해받지 않고 골프만 즐기기 위해 골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십분 이해하기에 그간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HS Club을 오픈하게 된 것이다.

"골프는 사교 그 자체입니다. 전혀 다른 업종의 사람들이 만나지만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두 그 시간을 공유할 수 있죠. 캐나다에서 만났던 노부부의 모습을 통해 돈이나 사업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즐기는 골프 문화를 배웠던 것처럼, 골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HS Club을 통해 개발해나갈 예정입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고된 삶에 선물하는 쉼표 같은 레저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예정이라는 이문오 대표. 수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중심에 있는 기업을 완성해나가고자 하는 그는 HS Club을 통해, 나아가 (주)한성회원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맺고 참된 휴식을 취했으면 한다. 2008년의 경기 불황이 올해도 계속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웃는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다. ☺